

**사설**

**탄력받는 조계종 사면**

조계종에 사면 훈풍이 불고 있다. 조계종의 사면 논의는 지난 10일 열린 사면복권검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일정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짐으로써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8일 대사면을 단행한다는 전제 아래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징계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별반자도 포함한다고 결의했다.

조계종의 사면 논의에서는 항상 별반자들에게 대한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별반을 포함해 징계를 받은 스님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자로서 본분사를 버리지 않고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오고 있다. 이런 스님들이 법적으로 종단의 구성원으로 재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단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계종 사면 논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대화합의 원칙 아래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새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원로회의와 종정 스님의 유시가 간곡했던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번 사면 논의는 별반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어 종단의 원용화합을 바라는 종도들에게 적지 않은 기대를 주고 있다.

종단의 원용화합을 기치로 내건 제31대 집행부의 출범을 계기로 해묵은 숙제를 풀고 화합종단의 면모를 일신하자는 종단 기류가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길 기대한다.

**‘스님 컴퓨터 교육’에 거는 기대**

스님들이 무료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불교정보화협의회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손잡고 스님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국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스님들이 인터넷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의 환경 속에서 스님들은 상당부분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포교 일선에 있는 많은 스님들은 그간 기회를 갖지 못해 인터넷 사회에 뒤처져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이 지난해 4월 실시한 불교정보화 실태조사에서도 잘 드러났다.

조사에 의하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국내 전체 사찰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 가운데서도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상당히 심했다. 또 컴

퓨터를 배우고 싶은 의사가 있으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스님들도 80%가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발족된 불교정보화협의회가 5월 경기도 구리 우체국을 필두로 강원 충남 등 전국 지역에서 스님들에게 컴퓨터의 기본과점 및 인터넷 활용의 기초 과정을 교육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인터넷 시대의 불교 발전은 인터넷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불교계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지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포교의 방법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스님들이 열의를 갖고 동참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체제개혁 본격 착수**

**종책·조직체계 진단·개편 프로젝트 가동**

조계종 총무원이 종책과 조직 체계에 대한 진단 및 개선 프로젝트를 가동, 본격적인 종단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이 작업 속에는 교육원과 포교원 통합, 복지원 신설 등 중앙종무기관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연구 검토도 포함돼 있어 종단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종단 발전방안 수립 및 효율적인 종책 마련을 위해 '종책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자문위원 인선에 들어갔다. 종책자문위원회는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등 집

**종책자문위원 월말까지 인선 마무리**

**총무·교육+포교·복지원 '3원체제' 검토**

행부 4명과 중앙종회 7개 상임분과별로 추천하는 각 1명(비구니 1인 포함), 본사주지 6명, 교수급 전문가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인선은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을 보장받게 되는 이들 종책자문위원들은 종단발전 청사진 수립 및 종무조직개편, 종단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종책자문위원회 구성과 함께 중앙종무기관 실무자들도 18일 중앙승가대에서 워크숍을 갖고 종단발전 청사진 수립을 위한 종책 기본안 마련에 나선다.

종책자문위원회와 병행해 '종무 체제·인력 진단 개선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총무원은 기획실과 총무부 관계자들로 실무팀을 구성하고 종교학·행정 전문가, 종회의원, 재가자들의 자문을

받아 △중앙종무기관 및 부설기관 종무체제 및 인력운용 개선 △직영사찰 인력 실태 점검 및 운용 개선안 검토 △관련 종법령 정비 △관련 예산 조정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제시한 '신 3원 체제', 즉 '총무원-교육원·포교원(통합)-복지원(신설)'이라는 새로운 종무체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이외에도 총무원은 법장스님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정부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정부 관계 및 종단의 사회참여 방안을 확립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불교문화사상저널 2호 원호관련 논문 등 22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문으로 발행되는 국제불교학술지 <국제불교문화사상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연간 2집)이 나왔다.

<불교문화사상>은 지난해 3월 동국대 BK21 불교문화사상사학연구소가 창간한 국내 최초의 영문불교학술지로, 2집부터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회장 송석구)가 발행을 맡는다.

편집위원장 김용표 교수(동국대)는 "<불교문화사상>은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국제불교전문지"이라며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 벌써 10여 개 대학에서 정기구독을 신청해 왔다"고 말했다.

원호 특집호로 꾸며진 이번 호에는 11편의 원호 관련 논문과 자유주제 논문 11편 등 모두 22편이 실렸다.

권형진 기자

**외국인행자 예법·의식 익히기 쉬워져**

**조계종 교육원, 영문판 '행해예경집' 간행**

외국인 출가자들이 한국의 절집 예법과 의식을 익히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조계종 교육원이 최근 사찰 예법 및 의식집인 <행해예경집(行解禮敬集)>을 영문으로 간행했기 때문이다.

<행해예경집>은 외국인 행자들이 한국의 절집에서 한국인 스님이나 신도들과 생활할 때 갖추어야 할 위의를 최대한 쉽게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합장 및 차수, 절하는 법, 대중 생활, 발우공양, 목탁 치는 법 등의 기본 예법과 반야심경, 조석예불 등 주요 의식을 손 모양, 발 모양, 자세까지 사진과 함께 설명해 놓았고, 용어마다 로마자 표기와 영문 설명, 한글 표기를 넣고, 언제, 왜, 어떻게 행하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의미 파악은 물론 불교 용어를 한국어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어권 스님들이 반야심경이나 천수경을 독송할 때

한국 스님들과 똑같이 발음할 수 있게 표기에 신경을 썼다.

최종 감수에 참여한 미국인 청고 스님(금강선원)은 "한국 불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통 예식을 모르면 곤란한 만큼 외국인 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원은 앞으로 외국인 스님들이 가장 원하는 근·현대 조사 어록을 영어로 번역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발음할 수 있게 표기에 신경을 썼다.

최종 감수에 참여한 미국인 청고 스님(금강선원)은 "한국 불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통 예식을 모르면 곤란한 만큼 외국인 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원은 앞으로 외국인 스님들이 가장 원하는 근·현대 조사 어록을 영어로 번역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새 위원장 천제스님 선출 조계종 법규위원회**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10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20차 회의를 열고 천제스님(해인사 천제암)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간사는 현각스님(원주 성불원)이 맡게 됐다.

천제스님은 선출 직후 인사말에서 "종단 내 법질서를 확립하고 모든 종도들이 종법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규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 종도들에게 유용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제스님은 1963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하고 5, 6대 중앙종회의원과 종정예경실장을 역임했으며, 1995년부터 법규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한명우 기자

**종단협 17일 정기총회**

**법장스님 회장 추대·올 예산 등 확정**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세검정 하림각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대스님 사퇴 이후 공석 중이던 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추대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한다. 또 종단협은 정기회비와 사업분담금을 체납하는 종

단에 대한 처리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수덕사 주지 법정스님 진산

"정법구현에 앞장설 것"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제19대 주지 법정스님 진산식이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각급 기관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수덕사 대웅전 앞에서 봉행됐다.

법정스님은 취임사에서 "정법을 구현하고 민족문화를 전승해 새로운 문화 창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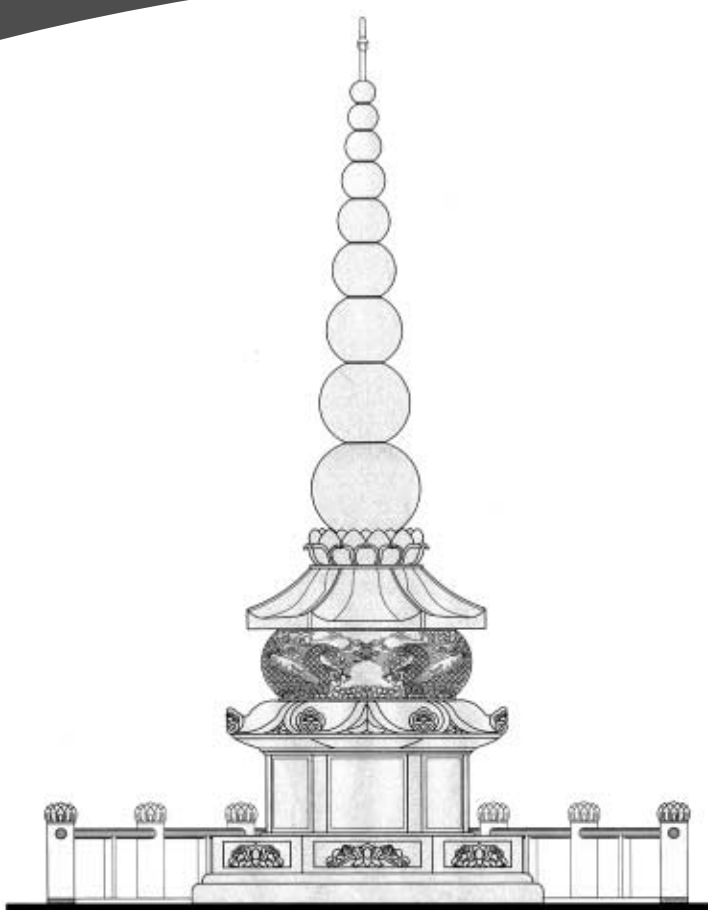
법정스님은 1944년 생으로 1959년과 63년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79년 수덕사 재무국장을 거쳐 89년부터 영봉암 주지를 역임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만평** 심민섭

대흥사, 새벽순길 잠정 중단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도량탑 제막식 안내**



울산지원 도량탑 입면도(9층)

귀의자성삼보하옵고.

새 봄이 왔다고 하지만 국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불자 여러분들은 한마음으로 함께 정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는 오는 4월 20일 도량탑을 봉안하는 법회를 열게 됩니다. 도량탑을 모시는 것은 우리 선원 불사의 큰 획을 긋는 일이 됩니다.

도량탑은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여 마침내는 구경토에 이르라고 세우는 것으로 우리 대응전 지붕의 우주탑과 함께 삼계로 연결되는 통신처가 될 것입니다.

이 도량탑을 회향하는 공덕으로 인연지는 모든 생명들이 한마음으로 돌아가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부디 이 뜻깊은 자리에 많이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전에 발원 올립니다.

◆ 때 : 불기 2547년 4월 20일 (일) 오후 5시

◆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헤안 합장**

도량탑 불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종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2)295-1884, 295-2335